

2020년 9월 Vol. 2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 소식지

– 내 아이를 학교폭력으로부터 지키는 부모의 지혜 –

01 전문가 칼럼

사이버 공간에서 언어 폭력이 더 무서운 이유



임상수
경인교육대학교
윤리교육학과 교수

우리나라의 학교폭력 통계에서 2013년에 언어폭력 건수가 물리적 폭력을 추월했습니다. 저연령화 현상과 더불어 사이버 폭력화, 언어폭력화 경향이 뚜렷합니다. 아이들의 일상 대화는 한 문장이라도 욕설이 섞이지 않는 경우가 드물 정도로 폭력적입니다.

부모님들 앞에서는 바른말 고운말도 쓰겠지만, 바깥에 나가서나 사이버 공간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때때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폭력적이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의 욕설과 줄임말과 은어를 쓰는 걸까요? 혹자는 청소년기 문화가 본래 일탈, 비행, 대항의 문화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나이 들면 저절로 나아질 것이라고도 합니다. 정말 그냥 두어도 괜찮을까요?

저속한 언어들이 아이들에게 '심리적 해방감'과 더불어 '무리에 대한 귀속감'을 강화시켜 줄 수는 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다 그러니까"라면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애써 그런 말을 사용하기도 하지요. 기발한 줄임말이 편리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의 의사소통에서는 재미 삼아 사용했던 저속한 표현과 또래 친구들과의 유대감 때문에 무심코 긍정했던 배타적 편견들이 그냥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불특정 다수에 의해 무제한으로 복제되어 확산되고, 지워도 지워도 사라지지 않고, 왜곡 변형되면서 재소환 되기 쉬운 것이 디지털 정보통신의 특징입니다.

'사이버 언어폭력의 부메랑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같은 사람에게 같은 내용의 욕설을 했다 할지라도 카톡이나 인터넷에서 그렇게 했다면, 문자나 음성, 영상이 남아 명백한 폭력의 증거가 되어 강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한번 처벌을 받아 죗값을 치뤘다 할지라도 끝이 아닙니다. '디지털 흔적(digital footprint)'이라고 불리는 기록들이 여기저기 남게 되기에, 사이버 언어폭력은 피해자에게도 가해자에게도 영원히 빠져나갈 수 없는 족쇄가 되기 쉽습니다.

대기업의 입사 담당자가 지원자의 SNS 글과 댓글들을 검색해서 디지털 프로파일링을 통해 그들의 인성과 가치관을 평가하는 사례는 이미 일상적입니다. 오랜 고생을 이겨낸 유명 인사들이 과거에 올렸던 폭력적인 글과 영상 때문에 사회적으로 비난받게 되는 일이 연예계, 스포츠계, 정계를 가리지 않고 자주 있습니다.

댓글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키보드로 무심코 입력한 욕설에 얼마나 엄중한 책임이 뒤따르는지, 한 번의 잘못이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과 피해자를 괴롭힐 것인지를 우리 아이들에게 잘 알려주어야 할 때입니다.

02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어울림 프로그램[1]

이번 호에서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6가지 역량 중 의사소통 역량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의사소통 역량이 중요한 이유는 자녀가 또래와 의사소통을 잘 못하는 경우 학교폭력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2], 더 나아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축, 우울 등의 정서적 문제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3].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신과 상대방의 감정을 잘 읽고, 그에 대한 적절한 표현과 반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4].



공감
자신과 타인의 마음을 정서적으로 느끼고 인지적으로 이해하여 효과적으로 반응하거나 의사소통하는 능력



자기존중감
자신에 대해 '스스로 충분히 가치 있다'고 느끼는 감정적 개념이며 자신의 약점을 인식하고 수용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마음



의사소통
타인과 언어 및 비언어적 상호작용을 통해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 · 조절하는 수단



갈등해결
자신이 경험하는 대인 간 갈등 상황을 인식하고 해결하는 능력



감정조절
효과적인 방법으로 감정을 표현하거나 스스로 해소하며, 상황에 맞는 대처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



학교폭력 인식 및 대처
학교폭력의 개념, 심각성, 학교폭력 관련 법률, 학교폭력의 결과 등에 대해 인식하고, 대인 간 관계회복과 폭력근절의 중요성에 대해 이해하며, 학교폭력 상황에서의 대처 방법을 아는 능력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 소식지**

2020년 9월 **Vol. 2**

– 내 아이를 학교폭력으로부터 지키는 부모의 지혜 –

03 어울림 프로그램의 6가지 역량 중 「의사소통」 실천하기[1)]

부모 자녀 사이에서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은 다양하지만, 그중에서도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의사소통 방법인 '비폭력 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임상심리학자인 로젠버그(Rosenberg)에 의해 창안된 방법인 '비폭력 대화'에서는 '기린'과 '자칼'을 대화의 상징으로 사용합니다. **'기린의 언어'**는 **사랑과 공감을 나누는 대화법**을 의미하고, **'자칼의 언어'**는 **상대방의 마음을 할퀴는 대화법**을 의미합니다[5)].

만약 아래와 같은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면, 부모님께서는 어떤 언어를 사용하여 자녀와 대화하시겠습니까?

상황

저녁식사를 함께 하기로 한 딸이 연락도 없이 약속시간보다 1시간 늦게 돌아왔다.



A 자칼의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





B 기린의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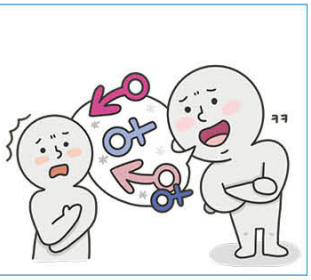


비폭력 대화 4단계 실천하기

1단계	평가 대신 **관찰**	자신의 관점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보고 들은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합니다.
2단계	해석 대신 **느낌**	생각이나 해석을 하지 말고 감정 단어로 나의 느낌을 그대로 말합니다.
3단계	**느낌 뒤의 욕구(바람)**	느낌의 근원인 욕구를 '~중요해', '~필요해', '~원해'의 형식으로 말합니다.
4단계	강요 대신 **요청(부탁)**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명확하고, 긍정적이며 구체적인 행동 언어로 부탁합니다.

04 언어폭력 예방 및 대처방안

학교폭력 유형 중 가장 많이 일어나는 유형이 언어폭력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교육부의 2019년 1차 학교폭력실태조사[6]에 따르면 전체 학교폭력 유형 중 **언어폭력이 35.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언어폭력은 또래 사이의 사소한 말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싫어하는 별명을 지속적으로 부르기', '가족에 대해 함부로 말하기', '악의적 소문 퍼뜨리기'** 등은 모두 언어폭력에 해당됩니다. 언어폭력은 눈에 보이는 상처는 아니지만, 정도가 심각할 경우 자녀에게 정서적 후유증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언어폭력의 대표적인 유형을 알아보고, 가정에서 언어폭력을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7].

모 욕	협 박	명예훼손	언어적 성희롱
			
여러 사람 앞에서 타인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없는 모욕적인 용어(욕설, 비하하는 말 등)를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성격, 능력, 배경 등)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등으로 퍼뜨리는 행위	음란한 농담, 외모에 대한 성적인 평가,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등

자녀가 언어폭력으로부터 고통 받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피해 증상**과, 언어폭력에 대처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언어폭력 피해 증상[8]

1. 자녀가 자신의 외모나 이름에 대해서 비하하는 말을 자주함
2. 낯선 단어(욕설, 비속어 등)에 대해 질문함
3. 갑자기 핸드폰을 잠가 놓거나 핸드폰 문자가 자주 지워져 있음
4. 일기장, 메모장 등에 언어폭력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표현함

언어폭력 대처방안[8]

1. 자녀의 마음을 공감해 주면서, 위축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전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2. 언어폭력 상황에 대해서 육하원칙에 따라 객관화하여 기록하기
3. 언어폭력이 드러난 문자, 이메일, 메신저 내용을 캡처하여 저장하고, 통화 내용을 녹음하여 증거물로 가지고 있기
4. 학교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에 신고하기
5. 심각한 언어폭력에 노출된 자녀인 경우 전문 상담사의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그렇다면 언어폭력 예방을 위해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실천방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언어폭력 예방을 위한 실천방안[9]

1. **언어 예절 갖추어 대화하기**
   -친구 사이에 지켜야 할 예의가 있음을 알게 하고, 상대를 배려하며 말하고 듣도록 지도하기
2. **바른 언어 사용하기**
   -욕설, 은어, 비속어 대신 고운말을 사용하도록 지도하기
3. **부모 자녀 간 올바르게 소통하기**
   -가정에서 부모가 먼저 배려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고운말을 실천하는 모범을 보이며 올바르게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기
4. **온라인상에서 예절 지키기**
   -비대면 온라인상에서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로 대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 상대를 배려하는 언어와 이모티콘 사용하도록 지도하기, 악성 댓글 대신 선플을 달 수 있도록 지도하기, 인터넷상의 대화 내용과 모든 활동이 기록에 남게 되므로 자신이 사용하는 말에 책임 있는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하기

05 학교폭력에 대한 전문적 대처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설치

-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2019. 08)되어 단위학교에 설치·운영되었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로 이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3월 1일부터** 학교폭력 사안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가해학생 조치가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조사 및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교육(지원)청에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면 교육장은 심의위원회 개최 후 조치결정을 학교장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이 경우, 학교장은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학교	→	교육지원청	→	학교
• 사안 조사 • 전담기구 심의 •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조치결정 학교 통보		• 조치이행

※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되는 사안인 경우,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학교장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지 않고 자체 해결할 수 있습니다.

06 학교폭력 발생시 도움기관

학교폭력이 발생하게 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기관명	연락처	QR코드	기관명	연락처	QR코드
안전Dream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국번없이 117		1388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국번없이 1388	
We 우리가 희망이다	홈페이지 (www.wee.go.kr) 참조* *Wee센터 연락처는 지역별로 상이함.		푸른나무재단 The Blue Tree Foundation	1588-9128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서울센터 (02-956-8116) 원주센터 (033-766-8116) 광주센터 (062-654-8116) 대구센터 (053-586-8116) 부산센터 (051-203-8116)		Healing Center, Haemalgum 해맑음	070-7119-4119 070-7119-1703~8	
OUR KIDS HAPPY PROJECTS 우리아이 행복프로젝트					

참고문헌

1) 성윤숙, 서정아, 장윤선, 서고운, 김성은(2020).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기본 프로그램(고등학교용).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2) Lee, Y. O., Cheon, S. M., Ryu, W. J., & Jeong, H. G. (2009). The effect of classroom-based nonviolent communication training program on middle school students' communication and peer relationships. The Korean Journal of East-West Science, 12(2), 47-57.

3) Naranjo, C., Kornreich, C., Campanella, S., Noel, X., Vandriette, Y., Gillain, B., ... & Constant, E. (2011). Major depression is associated with impaired processing of emotion in music as well as in facial and vocal stimuli.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28(3), 243-251.

4) Yang, J. W., & Kim, S. (2016). Integrative review of nonviolent communication intervention studies. Perspectives in Nursing Science, 13(1), 36-47.

5) Rosenberg. M. B. (2004). 비폭력대화(캐서린 한 역). 서울: 바오-재구성.

6) 교육부(2019). 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분석결과 발표.

7) 교육부,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2020).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세종: 교육부.

8) 오혜영, 전연진, 강석영, 이대형, 한지현, 채중민, 김수희(2009). 학교폭력 (학부모개입 지침서 5). [KYCI] 교육 및 프로그램 자료-재구성.

9) 교육부,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한국교원대학교 안전교육센터(2017).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안전교육 모델 개발 연구. 충북: 한국교원대학교 안전교육센터.

발행인 송병국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7층

TEL. 044-415-2401

FAX. 044-415-2369

본 소식지는 아래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어울림 프로그램 관련 자료(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 http://stopbullying.re.kr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 소식지 Vol. 3에서는 「어울림 프로그램」 6대 역량 중 '자기존중감·갈등해결'과 '(사이버) 따돌림'에 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학부모님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